

마레이지아 건축사 회장 방한기

—3박4일의 여정 마치고 이한—

말레이지아 건축사협회 회장 “하이살·알바크리”(Hisham Albakri)씨가 본협회의 초청으로 지난 9월 16일 낮 12시 40분 C.P.A 항공편으로 내한하였다.

우리 나라와 말레이지아 건축사협회 간의 국제적 유대를 돈독케 한 Hisham Albakri씨는 3박4일의 짧은 여정이 엿지만 덕수궁, 중앙청 종합청사 공사장, 스카이·웨이, 워커·힐, 남산 등 서울시내 여러 명소를 찾아 우리나라의 최신 건축물과 고건축물을 돌아 보았다.

또한 Hisham Albakri 회장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지난 17일 오후 5시 20분부터 신문회관 회의실에서 “말레이지아·백그라운드”라는 주제로 강연회와 스크라이드를 통하여 말레이지아 건축계 현황과 역사적 배경을 두시간에 걸쳐 상세히 강연하였다.

이날 강연회에 앞서 김재철 회장의 “한국과 말레이지아의 국제적 유대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라며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기 바란다”는 요청의 환영사에 담하여 Hisham Albakri 회장은 “자기를 초청하여 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한국과 말레이지아 건축사계 유대 강화에 노력 하겠으며 짧은 시일의 방한이지만 한국의 건축물을 보고 배우고 돌아가게 된 것을 무한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국의 건축사는 누구던지 말레이지아에 오면

자기를 잊지 말고 찾아주기 바라며 자기는 이번의 후배에 보답하겠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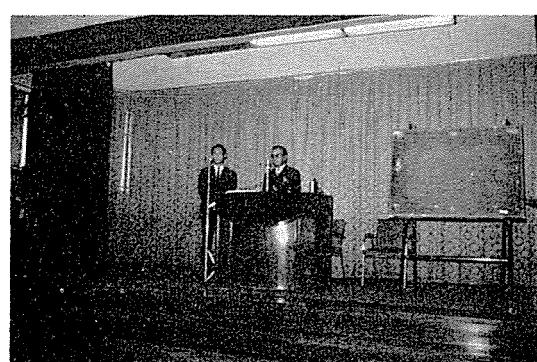
이어 말레이지아 대사관 이우영 씨의 통역으로 진행된 강연회에서 Hisham Albakri 씨는 말레이지아는 일년에 비가 95인치 정도 오며 기후는 최고 섭씨 36도 최하 26~27도며 지진은 없으나,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식물은 빨리 자라나 원목은 일직 쪽으로 건축물은 100년 정도 밖에 못 가는데 한국에 와서 덕수궁과 같은 고적을 보았을 때 부러움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면적 330,427km²에 인구 1,100만명을 갖고 있는 말레이지아는 등록된 건축사(면허를 얻은 건축사)가 약 300명이며 건축회사가 65개밖에 안 되나 건축사의 설계 보수는 건축분야만 7.5% 위생, 난방, 전기 등에 2.5% 견적에 2.5% 도합 공사비의 12.5%라고 밝힌 Hisham Albakri 회장은 말레이지아의 건축사는 인도와 태국과 같은 이웃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250년 동안 계속된 영국의 통치 하에서 영국의 스타일을 갖어 왔고 영국의 건축사에 의해서만 이루워졌으나, 일부에는 독일 건축의 영향도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2년 전에 독립한 말레이지아의 현재 건축사들은 대부분이 영국과 호주에서 공부한 사람이나 자기 나라의 국민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건설부 차관과 환담하는 Hisham Albakri 씨



강연하는 Hisham Albakri 씨

것과 조화해서 설계하고 있으나 남은 건축물 즉 고전 축
물이 없기 때문에 애로와 난점이 있으며 정부에서도 말
레이지 아식으로 건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Hisham Albakri 회장의 방한중의 일정과 약력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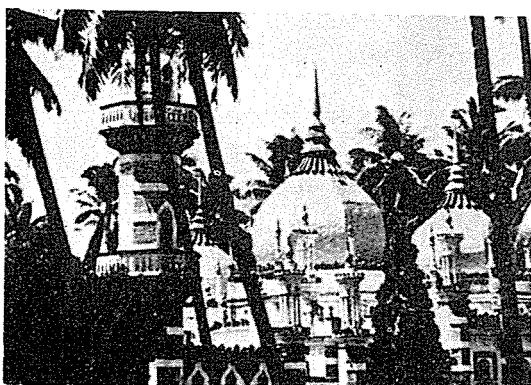
일정표

- 9월 16일 12시 40분 C.P.A편으로 김포공항 도착
17시 30분 영접환담 세종호텔에서
참석자, Hisham Albakri 회장
김재철회장,
사업담당이사 김진천
말레이지아래사관 이우영
통역 매리여사
9월 17일 7. 40-7.55 동양 TV 인터뷰
9. 40-10.10 덕수궁 견학
10. 20-10.50 중앙청 종합청사공사장 시찰
11. 00-11.30 스카이·웨이 시찰
12. 00-13.00 워커·힐에서 오찬
13. 20-13.50 한국식 고전물 견학
14. 00-14.40 남산(시내광경 장춘공원 경유)
15. 00-15.20 건설부차관 방문
15. 30-15.50 외무부 방문
17. 20-19.20 신문회관에서 강연회
9월 18일 자유시간
9월 19일 14:05 노스웨스트 항공편으로 이한
Hisham Albakri 회장의 약력
1930년 9월 7일 malaysia에서 출생
1940년 ~41년 malay Callage에서 수학
1951년 ~56년 Sheffield University(U.K.)에서 건
축학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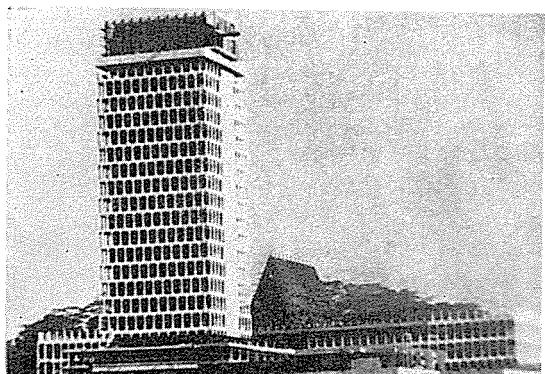


Hisham Albakri씨의 내한을 환영하는 파티

- 1961년 ~62년 A.A. School of Architecture(U.K)
에서 열대지방 건축학 전공
1963년 현재 Kumpulan Akitek라는 상호로 건
축사무실 개설
말레이지아·싱가포르 건축사 연합회
회원
영국 왕립건축사협회 회원
영연방 건축사회 회원
기타 저서 작품 많고 그외에도
왕립재해대책위원회 회원
말레이지아 건축사 자격시험 위원
염가주택 자문위원
표준규격협회 회원
미술위원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국토계획위원회 위원
Hisham Albakri씨는 또한 태국, 영국, 비율민, 쏘
련, 불란서, 큐바, 말타, 일본등지를 방문한바 있다.



말레이지아의 회교사원



말레이지아의 현대 건물